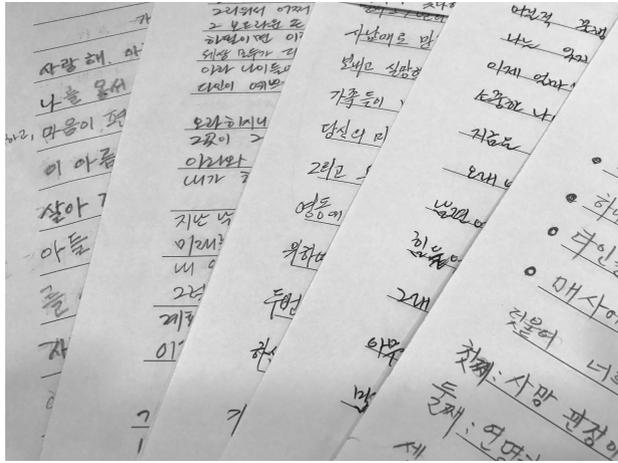




주안복지재단 시니어 복합문화공간

애록재 〈작은 자서전 쓰기〉



“지금부터 48시간 후에 임종을 맞이해야 합니다.
배우자, 자녀, 가족, 친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은
앞으로 1시간 밖에 없습니다.

1시간 동안 유언장을 쓰고 임종을 준비하려 가야합니다.
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?”

2017 〈작은 자서전 쓰기〉 세 번째 강의, 유언장 작성 시간에 던져진 질문이다.
본격적으로 자서전의 내용을 채우기에 앞서 진심을 담은 글을 처음 써보는 시간. ‘유언장’이라는 제목이 적혀진 빈 종이를 받아 들고 글을 읽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올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웬지 마음이 뭉클하다.
참여자들 대부분이 강의 첫 시간에 ‘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걱정이 되요, ‘큰 업적을 이루지도 않았는데 써도 될까요?’ 하는 우려 섞인 질문들을 많이 하셨다. 우려를 딛고



꾸준히 강의를 함께 해 온 결과 진심을 담아 쓴 첫 글, 유언장을 완성할 수 있었으며 그 안에는 어르신들의 용기와 가족을 향한 절절한 마음이 가득했다.

〈작은 자서전 쓰기〉 프로그램은 주안복지재단 ‘애록재’(愛錄齋)에서 작년부터 시작한 노인복지사업으로, 살아온 삶을 기록으로 남겨 사랑하는 가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. 특별히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서전을 출간한 저자의 강의로 모든 일정이 진행된다. 어르신들이 정성스럽게 손으로 작성한 원고는 관련 전공 자원봉사자의 손길을 통해 다듬어져 책으로 출판될 예정이다.

애록재 〈작은 자서전 쓰기〉 프로그램에 첫 발을 디게 된 참여자 각각의 동기는 다르지만, 지나온 삶의 여정과 희로애락을 돌아보는 모습, 가족을 향한 애뜻한 마음을 담아 꼭꼭 눌러쓰는 모습은 모두 한결같다. 그렇게 같은 마음, 같은 모습으로 노력과 열정을 담아 써 내려가는 작은 자서전에는 삶의 지혜와 인생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풍성한 글들이 담길 것이다.

이제 2017년 〈작은 자서전 쓰기〉 1/3이 지났다.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기록으로 남기고자 용기를 내신 분들 모두가 마지막 강의까지 잘 완주하여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자서전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.